

관광통역안내사 97% “고용보험 가입 희망”

‘코로나19 직격탄’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가입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구축방안’ 보고서에 담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약 84%는 코로나19 이전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 경험이 있었고, 약 9%는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희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 이전 가이드들은 4대 보험 적용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걸 선호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인식 전환이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

했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왔으나 2020년 말부터 예술인에게 확대 적용됐다. 2021년 7월부터는 보철설계사, 학습지도사 등 12개 직종을 포함시켰으며 올해부터는 킷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안 위원은 “관광산업도 고용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고용 위기는 종사자 보호와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산업 종사자는 청년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력단절여성, 실버인력

등 재취업이 증가하는 추세라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로서 갖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안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로드맵 상 우선적 검토가 필요한 대상은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관광가이드”라며 “특히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관광가이드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용 형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 역시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며 “어떤 형태로 적용되어야 할지는 정부를 포함해 여러 논의를 통한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

“문화재 수리, 어떻게 하나 궁금하시죠?” 유튜브로 공개

문화재청, 현장 온라인 답사 영상 4편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현장 온라인 답사 영상 4편을 문화재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전통 수리기술 현장을 알리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4년부터 매년 ‘문화재수리 현장 중점공개의 날’을 운영해왔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문화재수리현장 중점공개의 날’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6개소 수리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4개소의 수리 현장 영상을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한편씩 선보인다. 2020년의 수리현장들이 비교적 규모가 큰 목조 건축문화재 해체수리 현장의 전문성을 보여줬다면, 2021년의 수리현장들은 목조건축문화재 외에 고택, 초가이영잇기, 성곽수리 등 수리 대상을 유형별로 다양화했으며 전문가와 문화재청 대학생 기자단도 참여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현장 온라인 답사 영상 4편을 문화재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전통 수리기술 현장을 알리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4년부터 매년 ‘문화재수리



고창 무장현.

현장 중점공개의 날’을 운영해왔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문화재수리현장 중점공개의 날’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6개소 수리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4개소의 수리 현장 영상을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한편씩 선보인다.

2020년의 수리현장들이 비교적 규모가 큰 목조 건축문화재 해체수리 현장의 전문성을 보여줬다면, 2021년의 수리현장들은 목조건축문화재 외에 고택, 초가이영잇기, 성곽수리 등 수리 대상을 유형별로 다양화했으며 전문가와 문화재청 대학생 기자단도 참여했다. /뉴스

언론진흥재단 “해외 사이트서 국내 언론사 기사 무단 전재 시정조치 요청”

국내 언론사 기사가 해외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전제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정 조치에 나섰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경제가 지난해 12월22일 이메일로 ‘뉴스디렉터리 3’(newsdirectory3)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기사가 전제되고 있어 재단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디렉터리 3’에는 한국경제 기사뿐만 아

니라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 종합지, YTN 등 방송사, 뉴스 등 뉴스통신사의 기사 전문과 사진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 개 매체를 대상으로 뉴스 저작권 실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단은 이를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사이트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뉴스

재단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시정조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제재하고 사이트 폐쇄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현재 뉴스디렉터리 3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서버 관리자에게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뉴스



남원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복(福)과 복(魚)을 주제로 기획한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을 오는 2월 2일까지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한다.

‘세계 복(福)과 복(魚) 만나요’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서 2월 2일까지 특별기획전 진행

남원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복(福)과 복(魚)을 주제로 기획한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을 오는 2월 2일까지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한다. 복(福)과 관련된 전시공간은 ▲세계의 복(福) ▲복이 넘치는 공간 ▲소원지달기 ▲복불복게임 등이 있고 체험공간으로는 ▲비눗방울놀이 ▲풍선컬링 ▲모래놀이 등이 있다. 세계의 복(福)은 나라별 복과 행운의 상징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복어와 복주머니 모양의 소원지에 2022 임인년 새해소망을 적어 소원벽에 걸어볼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의 복(福)을 만날 수 있는 ▲복이 넘치는 공간은 형형색색의 아름답고 신비한 살아 있는 복(魚)을 만날 수 있으며, 복어와 생김새가 비슷한 풍선과 비눗방울을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이밖에도 실내 모래

놀이터를 대규모로 조성해 모래놀이장난감, 모래볼드 등을 활용한 체험이 있다. 이번 특별전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시관은 동시 250명 이내/특별전은 100명 이내로 운영 입장객 밀집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모래놀이, 비눗방울, 풍선컬링 등 체험시설은 방역을 위한 일회용덧신과 장갑 착용, 손소독, 마스크착용, 체험물 및 시설 소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전 연령대가 입장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매주 월요일, 설날 휴관) 1월 31일은 정상 운영하며, 문의사항 및 안내는 홈페이지(www.namwon.go.kr/tour)나 남원시청 산하복지과(063-620-5753)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음악상’ 문화예술특별상 안형일·신영옥 등 6명

한국음악협회(이사장 이철구)가 한국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음악인에게 주는 ‘2021 한국음악상’의 문화예술특별상에 안형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을 선정했다. 문화예술특별상 음악 부문은 안형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성악가 신영옥, 김원용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장에게 돌아갔다. 문화예술특별상 비음악 부문은 고(故) 정승일 전 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 안성복 중앙아트 J&A MUSIC 대표이사, 김현중 한국음악협회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뉴스

젊은음악가상에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과 김주리 작곡가가 선정됐다. 한수진은 지난 2011년 제12회 비에니압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2위를 수상했고, 김주리 작곡가는 2019년 제38회 대한민국작곡상 실내악 부문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본상, 공로상 등도 시상된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3시30분에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된다. /뉴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